

#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공개

알파벳 캐릭터 'J' 강조... '영화는 계속된다' 슬로건

'영화는 계속된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알파벳 캐릭터 'J'를 전면내세운 공식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15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는 전주(JEONJU)의 도시 브랜드를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접목된 전주국제영화제의 영문 이니셜이자 알파벳 캐릭터인 'J'가 사용됐다.

전주국제영화제 김광철 아트디렉터와 글자연구소 김태현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창조된 이번 포스터는 'J' 캐릭터를 전면내세워 그래픽 디자인 자체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특히 골추신 시각 도형과 한쪽 면이 완만하게 깎인 세로 기둥이라는 단순한 조형미 속에 영화제 개막을 고지하는 기능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맞선 전주국제영화제의 다짐을 담았다.

아울러 팬데믹 시대의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가는 제22회 영화제 슬로건인 'Film Goes On(영화는 계속된다)'을 간결한 타이포그래피로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먼저 디지털 스크린의 화소 단위인 픽셀을

형상화한 시각 도형에는 1990년대 디지털 혁명에 독립·실험 영화와 뉴미디어의 대안적 가능성을 표방하며 2000년 출범한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반영했다.

이는 영화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큐브'를 이 미지화한 것으로, 'J'를 완성하는 세로 기둥은 전통적인 영화 스크린의 비례를 가진 동시에 모바일 폰으로 대표되는 영화 매체의 미래를 상징한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김광철 아트디렉터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알파벳 캐릭터 'J'는 픽셀과 스크린으로 이뤄진 글자, 즉 영화로 형상화한 형태"라며 "여기에 영화제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미래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영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결의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영화와 영화제의 갈 길이 어디인가를 묻는 팬데믹 시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면서 "향후 공식 포스터에서 공개한 알파벳 캐릭터 'J'에서 파생된 영문 서체 한 벌을 발행해 영화제 이미지 브랜드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9



'영화는 계속된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알파벳 캐릭터 'J'를 전면내세운 공식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무주군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62일 동안 판화, 한국화, 사진전이 열려 코로나19로 예술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무주지역민들에게 수준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 '코로나19 예술의 힘으로 극복하자'

무주군 최북미술관 기획전시실서 유대수·고형숙·장근범 작가 전시회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멈춰 서게 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 이 사회를 '예술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의미를 진솔하게 담은 전시회가 무주에서 열려 관심이 쏠린다.

무주군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62일 동안 판화, 한국화, 사진전이 열려 코로나19로 예술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무주지역민들에게 수준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대수(판화), 고흥숙(한국화), 장근범(사진) 3인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작가들은 무원(無願무원) 주제로 설정하고 작품속에서 작가와 국민들의 처해 있는 고뇌를 함께 엮어 냈다.

이들은 27점의 작품을 통해 무원(無願무원), 즉 '구원받을 데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을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유대수 작가는 한지 목판을 활용해 만든 '숲에서 생각하는 것들' 작품에서 숲 속에서 탈출구를 찾는 무엇인가 골몰하게 찾고 있는 묘안을 찾고 있는 것을 형상화 했다. 나무에다 조각한 작품으로 얼마나 많은 작품을 찍어 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동안 한국화로 열작을 만들어 내고 있는 고흥숙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일상의 풍경'을 담은 작품을 전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사람들은 종종 지금 자신이 서 있는 현실을 벗어나 제3의 공간에서 풍경을 마주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잠시나마 그

림을 통해 멀리있는 풍경이 아닌 내 눈앞에 펼쳐진 익숙한 풍경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진 책들이 인상적이다.

장근범 사진작가는 각 아시아 여행국을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들을 이번 전시회에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작품속에는 조속하게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아시아 여러나라를 돌면서 아름답고 추억어린 작품들을 소개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네팔에서의 활동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모습이 포착된다. 장 작가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에서 발견한 이야기가 이 작품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답답함을 작품속에서 읽을 수 있다.

전북문화가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대수 작가는 전주부채문화관에서 열린 관화부채전 등 수차례 개인전 등에 참여했으며, 고흥숙 작가는 그룹 및 단체전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근범 작가 역시 전북도립문화관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전 단체전과 개인전에 참여하면서 한국화의 존재감을 알린 주인공.

시설사업소 시설관리팀 양정은 주무관은 "1년이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를 벗어나고 싶은 감정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수준높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대 심세보 교수 개인전 인천서 개최

19~27일까지... 골목길 재생·주택 등 소형 프로젝트 중심 기획

전주대 심세보 교수(건축학과)의 개인전이 19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코스모40, 4층 특별실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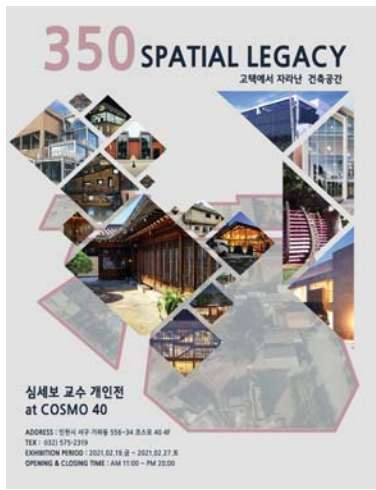
심 교수는 30여 년을 건축인으로 활동해오면서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디자인해 왔다. 이번 전시회는 그가 수행한 대다수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뒤로하고 골목길 재생, 주택 등 소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획했다.

심세보 교수는 350년이 된 한옥 고택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 그곳의 처마와 마당이 그의 건축의 바탕이 됐다.

그는 "사계절이라는 혹독하지만 아름다운 자

연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해온 한옥은 감성적이면서도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며, "여름의 무더위를 쾌청함으로 전환하고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포근함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생활 패턴을 단순한 동선으로 정리하고 사용된 에너지를 그대로 놓아버리지 않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고택은 여러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를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건축의 변화와 발전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국립국어원, '유형별 보도자료 작성 길잡이' 발간

국립국어원이 2,000여건의 보도자료를 수집, 분석해 '유형별로 알아보는 보도자료 작성 길잡이'를 펴냈다. 공무원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형별로 알아보는 보도자료 작성 길잡이' 발간은 보도자료 표준안을 마련해달라는 부처 담당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보도자료를 유형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했다.

유형은 크게 정책안내형, 정보제공형, 기타로 구분한 다음 ▲사업안내형 ▲행사안내형 ▲법령안내형 ▲생활정보형 ▲조사정보형 ▲성과정보형 ▲입장설명형 ▲동정자료형 등으로 세분화했다. 유형별 정보뿐 아니라 표제, 부제, 주제문, 무단 구성 등 구성에 관한 내용과 문

장 종결방식, 문장 길이, 글씨체 및 여백 설정 등 형식 관련 내용도 담겼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유형별로 알아보는 보도자료 작성 길잡이'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의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형별로 알아보는 보도자료 작성 길잡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된다. 원문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